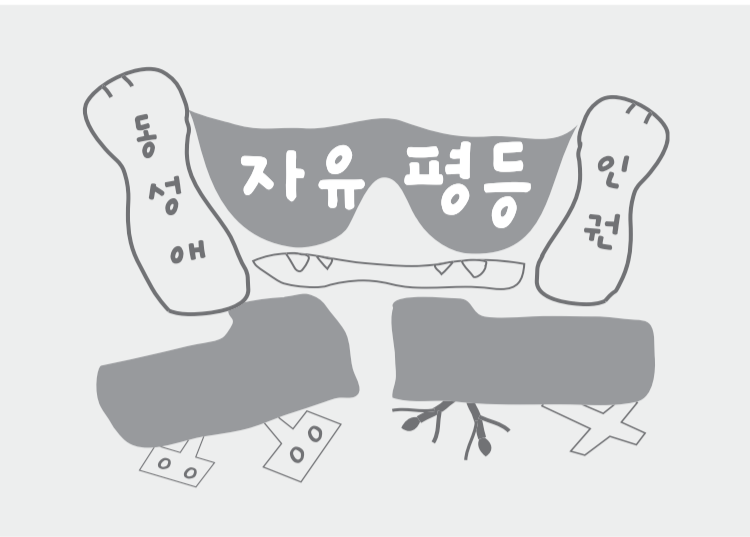


## 동성애 운동가들 “그렉 로리 목사는 反동성애주의자” 비난



### 국가 기도의 날

#### 초대장 폐기요청

동성애 운동가들이 복음주의자인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를 ‘반동성애주의자’라고 낙인 찍고, 그가 보낸 ‘미국 국가 기도의 날’ 초대장을 폐기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그렉 로리 목사는 워싱턴 D.C.에서 5월 2일 열릴 예정인 ‘국가 기도의 날’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가장 큰 성소수자(LGBT) 변호단체인 ‘인권캠페인(The Human Rights Campaign)’은 그렉 로리 목사가 미

국의 성소수자들에 반하는 말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소수자 군인들을 위한 단체인 아웃서브-에스엘디엔(OutServe-SLDN)은 국방부에 동성애 아젠다에서 그렉 로리 목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유는 그의 설교가 너무 ‘반동성애적’이라는 것이다.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와 신앙 프로그램’ 담당자인 샤론 그로브(Sharon Groves) 박사는 “그렉 로리 목사의 메시지는 신앙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것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믿는 자들이 신앙을 이유로 평등에 대해 말하거나 이

를 구성하는 데 이 전보다 더욱 강요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렉 로리 목사는 그러나 크리스천포스트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다. 로리 목사는 그동안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그렉 로리 목사

→ 2면에 계속  
 강해진 기자

## 김세운 박사, 구원파적 칭의론 “윤리와 신앙 구분 야기” 지적

### 이미와 아직 구도 속 칭의 고찰할 것 강조

플러신학대 김세운 박사가 미주두란노서원에서 ‘칭의와 성화’란 주제로 22-23일 강의했다.

김 박사는 이번 강의에서 ‘칭의’의 전통적 해석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였음을 믿으면 그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면, 의인으로 선언되는 것”이라며 “그러하여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지 아니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된다고 이해하

는 것이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주로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운 박사는 이어 ‘칭의’의 관계론적 해석에 대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등 돌린 죄인들을 자신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주의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덧입어 그의 무한한 자원에 참여하고 그의 신적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심에 의지하고, 그의 주권에 순종해 사는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3면에 계속  
 토마스 맹 기자



사랑의빛선교교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사랑의빛선교교회가 지난 26일 오후 창립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사랑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물놀이를 비롯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성도들은 교회 역사를 주제별로 구성한 영상 등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동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콘서트에서 모인 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웃교회를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관계기사 6면>

## LA카운티 통계, 한인 인구대비 최고 자살률 기록

### YNOT, 청소년 자살충동 세미나

나성영락교회 산하 YNOT 재단이 26일 오후 7시 동교회에서 ‘청소년의 자살충동-이해와 대처방법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로는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소속 김재원(LCSW) 소셜워커가 나서 △청소년의 자살문제의 현황 △자살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 △자살로부터 보호해주는 요소 △청소년의 자해행위 △위험신호-자살의 위험에 대한 대처 △사후 대응에 관해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재원 소셜워커는 LA카운티에서 발표된 자살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며 “카운티 내 인구대비 한국인의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환경·상황적인 요인으로 ▷친밀한 관계의 상실 ▷성적 부진 ▷학교생활의 위기 ▷가족의 위기(가정 폭력) ▷신체적 질환 및 만성통증 ▷집단 따돌림 등이 있다. 특히 “연령에 관계없이 따돌림의 가해자, 피해자 모두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며, 따돌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닌 사람보

다 6배 정도의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한편, 자살 예방 및 방지 상담전화는 다음과 같다. △911 △1-800-854-7771 (정신건강국 핫라인) △1-800-273-8255 (생명의전화) △1-877-727-4747 (자살예방 핫라인) △1-855-952-9276으로 연락, 상담 혹은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 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 HAN	IRS \$735,661.94	\$15,566.00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오토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할인해 드립니다.**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증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6월 15일

### > 한영이증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美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이슬람에 대한 인식차 현격



이슬람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종교적 배경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중 절반 이상이 이슬람에 대해 “본질적으로 폭력적 종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나리서치가 지난 1,008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들의 이슬람 공포증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보통 미국 성인의 경우 고작 26%만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52%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폭력적인 종교로 보고 있었지만, 이 수를 뛰어넘는 전체의 68%는 “크리스천과 무슬림 간의 평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주류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의 경우는 79%, 대학 졸업자는 82%, 일반인은 75%가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복음주의자가 아닌 경우 중 30%, 가톨릭 신자 중 26%, 비신앙인 중 20%만이 이슬람을 폭력적인 종교로 보고 있었다. 이는 곧 종교나 신앙 배경에 따라, 이슬람의 폭력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현격히 차이를 의미한다.

비신앙인은 62%가 “이슬람은 평화적 종교”라고 답했다. 가톨릭도 59%, 복음주의자가 아닌 경우는 47%, 복음주의자인 경우는 27%가 “이슬람은 평화적 종교”라고 했다.

이번 보스턴 테러를 저지른 타메란과 조하르 짜르나예프 형제는 무슬림이었으며, 이들은 이민 부적응과 미국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인들의 68%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에 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현재 종교에 대한 인식 분포를 보면 미국인의 33%는 이슬람에 대해 호의적, 36%는 반대, 31%는 중립이다. 복음주의자들은 39%가 이슬람에 반대하며 23%가 “별로 좋지 않다”, 16%가 “다소 좋다”, 5%가 “아주 좋다”, 17%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 랄프 윈터가 말했던 ‘기독교 문명운동사’와 미래 전망

“악(惡)과 싸워야 하는 전시상황임을 인식하고, 함께 훈련하라”



故 랄프 윈터 박사



랄프 윈터의 기독교 문명운동사 임윤택 편저 | 504쪽

명령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책 속에서 일관되게 펼쳐진다. 그의 이런 주장은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기독교에서 ‘사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진 데서 비롯된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에 더는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성경과 다르다(벧전 5:8)”.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힌다. “그것은 바로 악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다. 우리는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을 탈환해야 한다.”

이 방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이유는, “불가능한 꿈”,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주제”를 다루려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에 관한 최신 정보들을 총망라하여 도출한 전반적·과학적 사실들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전혀 상충하지 않게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가 사람들을 흑독한 가난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 등 ‘원수들’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으로 확장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도원’에 주목한다. “수도원은 서구 기독교에 놀라운 축복이었다. 수도원은 내세 문제를 넘어 다양한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중세의 건축물, 도로, 교량, 교육, 정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쏟았고, 이것들은 모두 수도원 운동의 산물이었다. 유전학, 해

부학, 천문학, 일반 과학 등의 초기 업적도 모두 수도원에서 이뤄졌다.”

윈터는 선교를 ‘하나님 나라의 탈환 작전’으로 정의내리면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문화’이다.

그는 구약의 역사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각각 다섯 단계로 구분하는데,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 다양한 사건들은 ‘신앙 양식(信仰 樣式)’, 즉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한다. “문화 양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질그릇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 믿음의 본질’이다.

기독교 문명운동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복원하는 운동’이라 설명하면서, 그 미래도 전망한다. 먼저 과학과 신앙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설립된 무디 성경학교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며, 기독교 지도자 교육 커리큘럼을 개선해 처음부터 자질을 갖추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또 신학교보다는 복음주의 대학교를 선호해야 한다.

복음주의자들을 향한 랄프 윈터의 마지막 외침은 “시아를 넓히라”는 것이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면전은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은 시야를 더 넓혀 사회 각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첨단 미생물학도 연구하고, 현실 정치에도 참여해야 한다. 새롭게 일어나는 기독교 문명운동을 위해 ‘미래의 기회를 포착하도록’, 우리는

그보다 더한 어떤 일이라도 감수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악의 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므로, 여기에는 비기독교인들까지 동원해야 한다.

그는 날로 악화져 가는 세상을 그대로 수수방관만 하는 ‘내세지향적 신학’보다 더 나쁜 신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매우 수동적인 신학’이라고 일갈한다. 그래서 윈터는 연구와 훈련을 독려한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발전시켜 나가신다(God initiates and advances work in history to accomplish His purpose).”

### 함께 읽으면 좋은 도서

먼저 <기독교 문명운동사>에도 거론된 윌터 C. 카이저의 <구약성경과 선교(CLO)>이다. 이 책은, ‘이방의 빛 이스라엘’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교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영환 교수(서울신대 선교학)가 저술한 <네트워크 선교역사(비움)> 역시 추천할 만하다. ‘한국사와 중국사, 그리고 세계사’를 선교역사와 네트워크되도록 시도한 책이다. 교회사, 특히 선교역사를 위주로 서술하면서 장마다 교회사 및 선교역사, 동양사, 서양사, 한국사 등을 연대순으로 비교하여 도표화했다.

이대웅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2013년 신[편]입생 모집**

**학사(B.A.), 교역학석사(M.Div.) 과정**  
온라인 강의 전격 개설(2013년 가을학기부터)

**여름계절학기**  
기간 : 6월 10일(월) ~ 8월 16일(금)  
개설 과목 : 신구약중간사, 목회상담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선교와 세계관,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지혜문학 외 다수  
등록 : 5월 13일(월) ~17(금)

**가을학기**  
가을학기 개강일 : 8월 26일(월)  
입학 및 등록 : 본교 홈페이지(www.ptsa.edu) '입학정보실' 참조.  
입학 관련 문의 : Tel. 562.926.1023, ext. 300 / E-mail. office@ptsa.edu

본교는 미국 성서대학교협의회(ABHE) 정회원,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준회원인 동시에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 신학교로서, 본교에서 2년 이상 수학 후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 예장통합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KPCA 교단에서 목사 안수 후 한국 예장통합으로 이명도 가능합니다.

**ESL 과정**  
“풍부한 교육 경험을 가진 현지인 전문 강사들과 각 과정별 담당 교수제를 통한 지도, 원어민 대화 상대자 배정을 통해 **최고의 실용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름 학기 개강일 : 5월 20일(월) ~ 8월 30일(금) (총 15주)  
수강과정 능력측정(level test) : 5월 13일(월), 오전 10시  
가을학기 개강일 : 9월 9일(월) ~ 12월 20일(금) (총 15주)  
학비 : 학기당 \$2,200 (1년 3학기제)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 www.ptsa.edu



# WEA, 성경 번역 사례에 대한 독립적 검토 마쳐

## 위클리프와 SIL에

### 10가지 권장사항 전달

성경 번역에 대한 다양한 논쟁과 관련, 위클리프국제연맹(Wycliffe Global Alliance, 이하 위클리프)과 국제언어연구소(SIL International, 이하 SIL)는 '하나님 아버지(God Father)'와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 번역에 대한 최선의 사례들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12년 3월 세계복음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을 접촉했다.

WEA 대표인 제프 터니클리프(Geoff Tunnicliffe) 박사는 이에 대해 "WEA는 성경 번역이 지닌 필수적인 중요성 때문에, 이러한 독립적인 검토를 가능하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 우리는 이같은 치열한 관점이 결론에 이른 것을 기뻐한다"고 전했다.

독립적 패널의 임무는 ▲SIL의 번역 사례 검토 ▲무슬림들의 상황에서 신학적으로 수용할 만한 번역 방법론의 경계 설정 ▲이같은 권장사항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제안하는 것 등이다.

패널의 업무에서 상황화에 대한

강렬하고 폭넓은 논쟁, 주요(major) 언어들의 성경 번역 또는 다른 기관·교회·그룹에 의한 성경 번역은 제외하고 있다. 위클리프와 SIL은 패널의 권장 사항을 준수하는 데 동의했다.

WEA는 지난 2012년 5월, 로버트 E. 콜리(Robert E. Cooley) 박사가 패널 대표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 WEA와 콜리 박사는 WEA의 선교위원회·신학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이들의 추천으로 86명의 패널 위원회 목록을 작성했고, 9월말 경 이 가운데 12명의 위원들이 결정됐다. 선별 기준에는 전문성, 지역적 다양성, 성별, 능력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처음 만남을 갖고, 검토가 필요했던 번역 사례와 연구가 필요한 번역 이슈 등을 정했다. 패널은 3개의 실무 그룹으로 나뉘어 몇 달 간 성경적인 이론, 문화간 대화, 독자들과 만남 등에 집중했다.

지난 2013년 4월 초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2번째 회의에서 패널은 실무를 마무리했으며, 이 가운데는 위클리프와 SIL에 대한 10가지 권장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번역 방법론,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서 추가적인 문헌의 사용, 성

경 번역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WEA는 이러한 보고서를 받고, 이를 위클리프와 SIL에 전달한 상태다. 그 이후 WEA와 패널들은 지금은 검토에 동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WEA측은 "위클리프와 SIL이 향후 몇 달 동안 보고서의 권장 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WEA는 또한 보고서에서 제기한 전 세계적인 선교학적인 이슈와 관련해 위클리프와 SIL이 다른 선교 단체들과 연합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WEA의 터니클리프 대표는 "우리는 위클리프와 SIL이 그들의 번역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패널의 권장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감사한다.

또한 콜리 박사와 패널 위원들이 이 중요한 사안을 위해 모범적으로 일해준 것에 대해서도 매우 감사한다. 우리는 검토 결과가 많은 이들이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김세운 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 » 기사 1면에서 이어짐

김세운 박사는 이어 '종말론적으로 유보된 칭의'를 설명하면서 "칭의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우리의 믿음으로 얻은 칭의가 심판 때까지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칭의론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신약 종말론의 보편적인 구도 속에서 고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뤄진 구원을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은 그 구원의 첫 열매에 해당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며 "우리의 행위 대로의 심판을 거쳐 구원의 온전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러나 전통적인 칭의론 이해가 칭의의 관계론적 의미와 종말론적인 유보를 간과함으로써, 칭의(구원)와 의인으로 살기(윤리)가 구분되는 문제를 낳게 된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만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소위 '구원파'적 칭의론을, 어떤 이들은 '예정론' 또는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기까지 하여, 오늘날 윤리와 분리된 신앙(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믿는 한국교회의 비극을 낳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칭의와 성화와 관련해, 그는 "성화는 칭의에 있어 하나님과의 회복된 의로운 관계에 계속 '서있음'의 문제다. 전통신학이 주장하는 '성화'는 칭의의 구조 속의 현재적 삶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동의어

적 어휘이지, 칭의와 구조적으로 분리된, 칭의 다음에 오는 구원의 단계가 아니"라며 "칭의를 믿는자 된 순간부터 현재를 넘어 최후의 심판 때까지 구원의 전 과정을 포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론에 의거해 믿는자 된 순간에만 적용하고, 그 후에 성화를 논하는 식으로 하면, 칭의의 현재적 과정(곧 전통적인 신학이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 등한시돼 윤리 없는 칭의론이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의를 끝맺으면서 "칭의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의 이전됨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 하나님 나라 안에 서있음, 하나님 나라의 완성성에 참여하기의 구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성화는 의롭다 함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해서 사는 것, 즉 제자도의 삶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성화를 칭의와 분리할 수 없다.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김세운 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칭의론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비롯 ▲칭의론의 법적적 의미와 관계론적 의미 ▲예수의 하나님나라 복음의 구원론적 표현으로서의 칭의론 ▲은혜·믿음으로 받는 칭의와 행위대로의 심판 ▲성화란 무엇인가? 칭의와 성화의 관계 ▲성화를 위한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했다.

토마스 맹 기자

## 영 성공회 대주교와 동성애 인권운동가 '입장차' 확인만

동성애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끌었던,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캔터베리 대주교(Archbishop of Canterbury)와 피터 태첼(Peter Tatchell) 동성애 인권운동가의 토론이 최근 영국 램베스 궁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은 두 사람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후주에서 태어난 영국 정치활동가인 태첼은 핑크뉴스(Pink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매우 건설적인 만남이었다. 그러나 좀 솔직히 말한다면 실망스러운 점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동성 간 관계가 보기 드문 자질과 도덕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대주교는 결혼의 평등권을 정당화하는 데까지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스틴 웰비 주교는 분명히 최근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의 입장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동성애와 연결시킬 것인지 매우 고심하고 있었다. 나는 이같은 차별이 기독교인의 가치가 아니라는 나의 지적을 그가 이해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램베스 궁은 현재 이 논쟁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웰비 주교는 여전히 결혼이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정의를 붙들고 있다.

저스틴 웰비 주교는 "영국 성공회는 '결혼이란 남녀 사이의 평생에 걸친 연합'이라는 관점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서 "동시에 인간이 된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 중심은 인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웰비 주교는 또한 "의회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교회는 그것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나는 동성애의 관계를 인식하는 상태는 반대하지 않지만, 결혼을 재정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태첼에 따르면, 웰비 주교는 동성애자들의 관계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는 다른 입법구조 안에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태첼은 "나는 그에게 교회가 수 세기 동안 어떻게 노예제도, 식민지, 여성의 투표권 반대 등에 관련된 많은 정책을 지지해왔는지에 물었다. 이것들은 모두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이었으나, 지금은 모두 변화됐다. 왜 동성애 역시 변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핑크 뉴스에 따르면, 결혼을 재정의하는 것이 사회에 긍정적 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웰비 주교는 "이성애자들의 시인 결합에 대한 금지 는 반드시 끝내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성공회 저스틴 웰비 대주교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일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닉 부이치치 부부, 생후 2개월 된 아들과 함께한 사진 공개

‘라이프위드아웃림프(Life Without Limbs)’ 사역을 맡고 있는 닉 부이치치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와 생후 2개월 된 아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공개해 화제다.

닉 부이치치는 팔 다리 없이 기형적으로 태어났으나, 이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베스트셀러 작가·강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닉 부이치치는 작년 초 카나에 미아하라와 결혼했으며, 지난 2월 아들 기요시 제임스 부이치치를 낳았다. 그는 사진과 함께 “여러분의 사랑, 기

도, 선물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한편 닉은 최근 세계기독교인문협회(NRB 2013) 행사에서 “나와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을 보는 것과 정부 의회, 전 세계 대통령들, 또한 수십만 명의 인도 사람들 속에서 지혜롭고 온화하게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이 기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35만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가운데 8만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고 감동한 바 있다.

신태진 기자

### “동성애 치료, 못 받는다” 뉴욕서 법안 발의

동성애 인정·권장하는 상담 행위는 금지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애치료금지 법안이 발효된 데 이어, 뉴욕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치료나 상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넌 정상아 아니야”라는 식의 접근이, 그들의 인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행복을 저해하며 심지어 자살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이유였다.

그러나 문제는 동성애를 치료하려는 상담은 금지하지만 동성애를 인정·권장하는 상담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법안은 18세 이하의 누구든 환자나 부모의 의지에 상관 없이 치료를 금지하며, 이같은 치료를 하는 의

학계의 인물은 자격 정지 등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즉 치료 받고 싶어도 치료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뉴욕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한 데보라 글릭 의원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이 미국 노숙자의 40%를 차지한다. 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성적체성을 고치려는 부모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고 열변을 토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경우 리버티카운슬에 의해 이 법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들은 “이번에 통과된 캘리포니아 법안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부모의 권리를 무시하고, 정치적이거나 선입견적 요소를 앞세웠다”며 “환자나 부모, 상담가들에게 맡겨야 할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 여부가, 특정 관점을 지지하는 정부에 의해 규정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준형 기자

## 동성결혼 합법화가 인권 논쟁이 될 수 있는가?

동성결혼 혹은 동성에 문제가 인권에서 평등권 논쟁으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인권이란 개념이 평등권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동성에 논쟁과 관련해 역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걱정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628년 영국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1628)과 권리장전(Bill of Right, 1689) 등 17세기 초기 단계의 인권이 인간의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데에 머물렀다면, 근대적 개념의 인권을 가장 먼저 명시한 것은 역시 프랑스대혁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이다. 이 선언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중요한 이념을 포함

고 발표해 대대적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가 신봉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열성 형질인 동성애 유전자가 유전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니와, 그가 1995년 이를 보강하기 위해 재차 연구를 했을 때 Xq28 유전자와 동성애가 아무 관계도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동성결혼을 할 인권”이란 것은 아예 인권의 범주에 포함조차 될 수 없다. 다만, 하나님과 자연 법칙 안에서 진실로 자유로우며 평등하고 사랑받는 가운데 상처와 고통을 치유 받아야 할 권리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이 인권”이라는 주장이 사회적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CB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3%가 동성

이 말들이 갖는 공통점은 자신이 흑인이라는 것, 그리고 게이라는 것이다.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심리를 할 때, 대법관들이 고심한 화두 역시 평등이었다. 연방대법원이 1967년 판결하기 전만 해도 타인종간 결혼은 불법이었다. 백인과 흑인을 결혼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남성과 남성을 결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나는 것이다. 인종간 편견의 문제가 동성결혼자에 대한 편견과 다른 점이 무엇이나는 이 논쟁이 시작된 것 자체가 인권적 평등에 대한 개념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래서 최근 동성애를 커밍아웃하는 유명인사들은 “난 흑인, 그리고 게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흑인이라 차

### 인권의 기초는 천부와 자연스러움

하고 있었으며, 향후 모든 인권선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이념들의 바탕에는 역시 천부인권(天賦人權)이라는 자연권(natural rights, 自然權) 개념이 있었다. 즉, 풀어 쓰면 인권을 구성하는 자유, 평등, 박애는 하늘이 부여한 매우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인권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목할 단어는 천부와 자연스러움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자유, 평등, 박애는 결코 인권적 주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결혼을 지지한다. ABC와 워싱턴포스트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58%가 찬성했고 퓨리서치의 조사 결과 49%였다. 확실히 전세가 뒤집힌 것이다. 전락은 간단했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늘었다는 말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내버려두라”는 소위 싸구려 인권 개념이 대세가 됐음을 의미한다. 동성애가 인권의 기초인 천부와 자연스러움에 결코 부합할 수 없음을 깨달은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인권의 하위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자유, 평등, 박애로부터 동성결혼 합법화의 근거를 짜맞추기 시작했다. 그 중 첫째가 자유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데 뭐 어때냐? 그냥 내버려 두라. 동성결혼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별받을 수 없듯이, 게이로서 차별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말을 좀 바꾸면, 흑인인 것과 게이인 것은 동일한 범주라는 것이다. “너희들은 차별하고 싶겠지만 차별할 수 없어”라는 항변이 담긴 표현인 것이다. 다른 것(different)과 틀린 것(wrong)의 차이를 무너뜨리는 평등권이 최근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주요 전략이다.

동성애가 개념적·보편적으로 결코 인권의 범주에 들 수 없으니 아예 하위 개념을 개별 격파하는 식의 전략이 미국 사회 안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제 자유, 평등까지 왔으니 그 다음은 박애다. 동성결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박수라도 쳐 주게 만들 무슨 전략이 튀어 나올지 모르겠다.

과거까지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주된 주장은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인권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인 천부와 자연스러움이 동성결혼에 결여되어 있었기에, 주장 자체는 그다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다. 서구적 혹은 기독교적 개념에서 볼 때,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이자 가증한 것(레 20:13)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일단 천부는 아니란 것이다. 그럼 자연스러우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써 가정을 이루시고 생육과 번성하란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자연의 순리와 법칙에도 심각히 어긋난다(롬 1:26-27).

이런 시점에서 동성애자들이 들고 나온 비장의 카드는 바로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라는 주장이었다. 천부이자 자연스러움이란 것이다. 이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가 쏟아졌지만 아직도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동성애자가 된다는 근거는 없는 형편이다. 예를 들면, 1993년 동성애자 학자인 딘 해머가 동성애 유전자인 Xq28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유 뿐 아니라 평등이란 개념까지 동성결혼 지지자 사이에서 보편적 주장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NBA 보스턴 셀틱스에서 활약한 제이슨 폴린스 선수가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다.

그가 한 말은 “I’m a 34-year-old NBA center. I’m black. And I’m gay.”였다. 그보다 며칠 전에는 네바다 주상원의원이 동성결혼 법안 관련 회의 도중 갑자기 커밍아웃을 해 동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가 한 말은 “I am a black, gay male”이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A가 B를 포함한다고 해서 B가 A가 될 수는 없다. 게다가 어지러우면 더욱 그렇다. 그들이 동성애를 자유, 평등, 박애의 관점에서 아무리 조명한다고 해도 그것은 짝퉁 인권에 지나지 않는다.

인권의 기초는 천부와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자와 동성결혼 지지자들을 참된 인권의 개념에서 진정한 자유롭고 평등하며 사랑받는 존재로 대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음을 잊어서 안 된다.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당뇨병,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LIC #0H66712

## 1948년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하나 건강 보험의 사무실에 오시면 5분이면 간단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메디케어를 신청 하면서 신청인의 매달 소득과 자산에 따라 자격이 되는 정부 혜택 (메디-칼, 메디케어 보험료 절약 프로그램, 처방약 비용 보조프로그램)도 같이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 2013년 9월 부터 시행 예정인 메디칼 메니지드 케어 (메디칼 HMO) 플랜이란?
- 2014년 부터 시행 되는 칼메디 컨넥트 (메디칼, 메디케어 통합 플랜) 플랜이란?
- 오바마 케어 플랜이란 ?

(상기의 세미나는 특정 상품을 광고 하거나 판매 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을 주제로, 하나 건강 보험의 데이빗 강이 세미나를 하여 드립니다. 장소와 시간은 아래와 같으니 많이 참가 하셔서 변화에 따른 이득과 불이익을 인지 하시고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예약 문의 사항은 TEL:213-500-4563 (전화를 받지 않으면 통화중 이오니 10분내로 전화 올리겠습니다.)

1. **5월 4일** 2013년 (토) 오후 5시 **주님의 기쁨교회(이상호목사)**  
1540 Linden st, Riversie, CA 92507 T.(951) 686-4900
2. **5월 5일** 2013년 (주일) 오후 1시 **예천교회(김민재 목사)**  
955 W Imperial Highway, Brea, CA 92821 T.(714) 788-3677

**213-500-4563**  
Customer Service

**LOS ANGELES**  
520 S. Virgil Ave. Suite 204,  
Los Angeles, CA 90020

DAVID KANG  
LIC# 0F16211  
T. 213-500-4563



# 성령을 받게 하심은

민수기 11:16-3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억하기를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물 붓듯 부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 쓰시는 왕에게나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불들어 세우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이해하면서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불평 불만을 싫어하시는 성령님

민수기 11장 1-6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와와 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라 여호와와 불로 그들 중에 불어지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불이 그들 중에 불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위험도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더욱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도록 길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있는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애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때를 비교하면서 불만, 불평으로 믿음을 잃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만나라는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았고 이들이 위와 같이 원망하던 그 날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공급받아 먹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길에는 포로로 잡혀 끼어든 사람도 있고 출애굽 할 때 함께 나온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열에 함께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을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계속 탐욕을 일삼으니 이스라엘이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모습을 쉽게 흉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100% 믿어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만 내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홍해를 만나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그들의 먹을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고 계셨음에도 그들은 또 다른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만나를 특별히 공급해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 불평, 시비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10절에서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진노가 또 내리게 됩니다.

11-1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상당히 당돌하게 항의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능력의 사역자 모세가 이렇게 상당히 인간적이고 비판적이며 또 절망적인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토하고 불평을 한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금방 전염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 불평과 원망, 시비, 책망을 계속 하니가 모세도 그만 지치고 짜증이 난 것일 겁니다.

양떼는 그렇다 하더라도 목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목자도 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금방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했는데 하나님은 16절에서 광야교회의 조직을 최초로 시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욕구 불만, 불평을 해결해 나갈 재간도 없다고 항의를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할 장로 70명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내가 강림하여 거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고 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에게 고기의 냄새도 싫어질 만큼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보행자만 육십만 명인데 한 달간 그들을 어떻게 먹일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하십니다.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욕구 불만, 불평을 해결해 나갈 재간도 없다고 항의를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할 장로 70명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내가 강림하여 거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고 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에게 고기의 냄새도 싫어질 만큼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보행자만 육십만 명인데 한 달간 그들을 어떻게 먹일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하십니다.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욕구 불만, 불평을 해결해 나갈 재간도 없다고 항의를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할 장로 70명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내가 강림하여 거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고 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에게 고기의 냄새도 싫어질 만큼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보행자만 육십만 명인데 한 달간 그들을 어떻게 먹일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하십니다.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욕구 불만, 불평을 해결해 나갈 재간도 없다고 항의를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할 장로 70명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내가 강림하여 거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고 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에게 고기의 냄새도 싫어질 만큼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보행자만 육십만 명인데 한 달간 그들을 어떻게 먹일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하십니다.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욕구 불만, 불평을 해결해 나갈 재간도 없다고 항의를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할 장로 70명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내가 강림하여 거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고 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에게 고기의 냄새도 싫어질 만큼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보행자만 육십만 명인데 한 달간 그들을 어떻게 먹일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하십니다.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욕구 불만, 불평을 해결해 나갈 재간도 없다고 항의를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할 장로 70명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내가 강림하여 거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고 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에게 고기의 냄새도 싫어질 만큼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보행자만 육십만 명인데 한 달간 그들을 어떻게 먹일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하십니다.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욕구 불만, 불평을 해결해 나갈 재간도 없다고 항의를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할 장로 70명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내가 강림하여 거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고 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에게 고기의 냄새도 싫어질 만큼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보행자만 육십만 명인데 한 달간 그들을 어떻게 먹일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하십니다.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욕구 불만, 불평을 해결해 나갈 재간도 없다고 항의를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할 장로 70명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내가 강림하여 거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광야교회를 이끌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광야교회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자기 의지대로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시하신대로 여호와와 말씀을 좇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즉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예언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지금 성령 받아서 처음으로 예언해본 장로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니다. 예언은 모세만 하게 돼있었지만 장로들이 모세와 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 예언을 한 번씩 하게 해주시고 모세는 목자의 지위에 하나님이 올리시고 이 장로들은 봉사자의 지위에 세우시니가 하나님과 모세와 장로들의 사이가 저절로 정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백성들은 몰라도 성령 받은 70명의 장로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모세가 이끌어 가는 광야교회의 누구보다도 모세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장로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에 “그 녹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그것을 보고 한 소년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 사람들을 금지시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키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은 자도 심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퍼 두었더라”(민11:31-32)

하나님께서 한 달간 먹여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매일같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내어 쟁기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고기를 손질하고 요리를 해서 저녁을 먹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썩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시라 삼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욕심을 낸 백성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 시비만을 일삼는 무리들을 그곳에서 다 장사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목자로 세운 모세를 너무나 함들게 하고 행패했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욕심내어 쟁기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결국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조용히 믿음으로 따른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같은 교회에 목자와 함께 천국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진짜 믿음으로 영적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길이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물이 없어 목이 타고 배불리 못먹어서 허기가 진다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 조건을 부러워한다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만, 시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시켜서 그 믿음이 더욱 연단을 받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온전히 영글어서 하늘나라로 추수해 가시기 위하여 연단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를 시켜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늘소망을 위해서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칠십 장로들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 같이 한 성령 안에서 목자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들로, 온전한 성령의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 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2시 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11시 50분		기독일보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p>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증명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p>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 2013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IFP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K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y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미주장신대, 학사·교역학석사 온라인과정 개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가 오는 가을 학기부터 학사(B.A.), 교역학석사(M.Div.) 온라인 과정을 개설한다. 금년도 가을학기 개강일은 8월 26일(월)이며, 입학 및 등록은 학교 홈페이지(www.pts.edu) '입학정보실'을 참조하면 된다. 여름계절학기는 6월 10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 열리며, 개설 과목은 신·구약중간사, 목회상담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선교와 세계관,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지혜문학 외 다수가 있다. 등록은 5월 13일(월)부

터 시작된다. 또한 미주장신대는 ESL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학교 측은 "풍부한 교육경험을 지닌 현직인 전문 강사들과 각 과정별 담당 교수제를 통한 지도, 원어민 대화 상대자 배정을 통해 최고의 실용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SL 과정 여름계절학기는 5월 20일(월)부터 8월 30일(금)까지, 총 15주에 걸쳐 진행된다. 수강과정 능력측정(level test)은 5월 13일(월) 오전 10시에 실시된다. 가을학기는 9월 9일(월)부터 12월 20일(금)까지 열린다.

학비는 1년 3학기제로, 학기당 2,200불이다. 미주장신대는 미국 성서대학교협의회(ABHE) 정회원,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준회원인 동시에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 신학교이다. 이 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 후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졸업하면 한국 예장통합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KPCA 교단에서 목사 안수 후 한국 예장통합으로 이명이 가능하다. >전화: (562) 926-1023, Ext 300 >이메일: office@pts.edu

## 사랑의빛선교교회 20주년 기념 콘서트 및 임직식



사랑의빛선교교회가 지난 26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사랑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물놀이를 비롯한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됐다.

사랑의빛선교교회가 지난 26일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임직예배 및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8시에 시작된 '사랑나눔 콘서트'는 350여명의 성도들이 좌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사물놀이를 비롯, 연세동문콰이어, 아카펠라, 클래식 기타 듀엣, 남성 중창, 바이올린 연주, 밴드 하모니팀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됐다.

무대에 선 출연진들은 일절 사례비를 받지 않고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교회 측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모아진 기금은 이웃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콘서트에 이어 참석자들은 동교회가 지난 20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주제별로 구성해 제작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교회 창립의 뜻과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

**350여명 참석 대성황**  
**장로 안수집사 권사**  
**총 48명 임직 받아**

하기도 했다. 또한, 28일 오후 4시에 열린 임직예배에서는 장로 4명, 안수집사 16명, 권사 28명 등 총 48명이 참여해 임직을 받았다. 김정은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안동주 목사의 설교에 이어 김재문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 원로)가 서약을 인도했고, 안수식을 비롯 공포·임직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권면은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가, 축사는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가, 답사 및 축도는 김재문 목사가 맡았다. 서면으로 축사를 전해온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는 "사랑의빛선교교회가 평소 이웃을 돕고 어려운 신학생들과 노숙자들과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볼 때마다 큰 감동이 됐다"고 밝혔다. 한중수 목사(알바인침례교회)는 "이제 스무살이 된 동교회는 청년처럼 환상을 가지고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와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역사회와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랑의빛선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교회 측은 "담임목사였던 최혁 목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 담임직을 사퇴했으며, 현재 김재문 원로목사가 임시로 교회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애우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경연회를 엮습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p><b>중앙양로병원</b>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p> <p>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p> <p>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p> <p>■■■■ 봉사자들을 구합니다 ■■■■</p>	<p><b>그랜드 파크 양로병원</b>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p> <p>부활절 예배: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p> <p>추수감사절예배: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p> <p>성탄절 예배: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p>
--	--

**협찬**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엘에이 사랑교회, 믿음의 우산을 전하는 선교교회, 데이빗 백 변호사 그룹, 미동원 변호사 그룹, 기주 양로호텔, Lahenco, Inc. 세일러, 자동차, 남가주 철도도모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투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 COLUMN

## 하나님을 증거하라



**박용덕 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우주 만물, 인간 세계에 그대로 드러나며 확실히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오히려 위대한 구원의 사건으로 만드사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계획과 행하심에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 태양으로부터 대략 1억 5000만 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거리가 한 번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만일 태양이 지구를 향하여 조금이라도 다가오

면 동식물들은 타 죽게 되고, 만일 태양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동식물들이 얼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는 모두 공중에 떠 있는데 그 거리가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태양과 지구를 조정하고 있으며 또 다른 모든 행성들도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을 보아도 세계 곳곳에 6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사람의 혈액형은 A, B,

AB, O형 등 인종과 컬러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하며, 또한 눈과 코와 입이 놀랍게도 모두 얼굴에 붙어 있으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어류까지 모두 얼굴에 붙어 있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이는 결국 이 세상은 동일한 어떤 분에 의해 디자인되고 만들어졌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분명한 사실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증거 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뿐 아니라 날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말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여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최경주 미PGA서 꾸준한 성적. 귀하의 자녀도 이런 선수를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나라 탑프로 95% 이상이 부모의 골프조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7~11세 (K-TOWN 픽업가능)
- 모집인원 : 선착순 한정 모집
- 수업방법 : 주 2~3일

문의 : 310-598-0746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기고] 로잔언약의 신학적 근거(3·끝)

# 영적 싸움, 재림론... WCC에는 없고, 로잔언약에는 있다



이동주 박사

### ▶제11조 교육과 지도력

로잔언약은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진술한다. 교육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적 전통신앙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갈라디아서 1장 6-10절이나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선교지의 신앙과 신학에서 변질 되기란 매우 쉬운 일이며, 그러한 복음의 변질은 하나님의 저주를 부른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보존하고 그대로 전수하려면,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것이다(마 28:20). 이 조항에서 로잔언약은 전도만큼이나 교육에도 힘쓰지 못했던 결과로 제대로 된 현지 지도자를 육성하지 못한 바를 반성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인도의 토착화신학

### 로잔언약 15개조, WCC 신앙과 신학에 대한

### 명쾌한 답변과 복음주의적 고백 담겨 있어

### 인본주의 아닌 신 중심주의 신학이 특징

에서 우리는 실패한 기독교 교육의 한 면을 볼 수 있다. 인도에서 선교하였던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의 전통 깊은 범신론적 세계관을 벗어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도록 교육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 결과, 인도 출신 WCC 신학자들이 세계 선교에 미친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이 전세계로 결집할 수 없이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71년 '산 신앙인들과의 대화' 프로그램 책임자 사마르타(S. R. Samartha)는 "그리스도 일원론(Christomonism)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독교를 확대시키고(die Christologie ausweitert), 포괄적인 성령론(umfassende Pneumatologie)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혼합주의의 도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세계적이고, 또 이 혼합주의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그리스도를 제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 통치권에 투쟁한다. 그리고 이 도전과 투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의 재림과 동시에 깨져 버릴 것이다(살후 2:1-8). WCC의 혼합주의 원인은 교육의 실패로 보인다.

로잔운동은 토착화신학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잘 알고 있고, 틀에 박힌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 표준에 따라 그 지역에 알맞은 바른 신학교육과 훈련계획을 위한 독창성을 요청하면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는 명령을 실행에 옮길 것을 고백하고 있다.

### ▶제12조 영적 싸움

이러한 조항은 WCC와 거리가 아주 멀다. WCC는 정치·사회적인 싸움과 투쟁을 위하여 1966년 WCC 내에 '교회와사회협의회'를 세웠다. WCC의 '교회와사회협의회'는 Rich-

ard Shaull에 의하여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협의회는 창립 후 즉시(1966년) WCC 안에 혁명신학을 주창하였다. 이 '교회와사회협의회' 문서는 기독교인에게 혁명을 위한 동역의 자유를 촉구하고, 기독교인들은 힘의 구조(Machtstruktur)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말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데 있고,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그 역사에 참여하여 행동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무력 사용에 대하여 말하며, 방어 방법으로는 비폭력적인 방법이 합당하지만, 문제는 수백만을 억압하고 희생시키고 불의한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불가시적인 무력에 있다며, 무혈의 무력으로 온 백성을 영원히 절망시키기보다는 차라리 유혈의 혁명이 더 적은 악(ein geringeres Übel)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결국 비무력적인 입장이 기독교인의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절대 비폭력을 고집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으니 특수 상황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유혈 혁명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를 세상의 일부, 세상의 완성, 세상을 섬기는 자 등으로 정의하며 1960년대에 이르러 마르크스주의와 손을 잡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의 왕국(새 사회)을 건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투쟁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WCC의 싸움과 투쟁은 역사 속에서 성취하려는 집단적 구원의 도구이며,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그들은 무력 사용에 대하여 무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인가, 그리고 무력을 자기 교회나 기관을 위해 사용하는가 아니면 자기희생적인 사용인가를 질문한다. 즉 무력 사용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어떤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WCC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권세자들과 능력들과의 싸움에 대해 알고자 하지 않고, 이러한 영적 투쟁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열기와 무력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것은 복음주의자들의 영적 전통이다.

로잔언약은 열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나 창과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복음에 대해 항상 적의를 품고 영혼을 노략질하며 죽이는 악한 영적 권세자들에 관해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와 대항하여 싸우는 대상은 에베소서 6장 11-12절에 기록됐듯 열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 무기들은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간구이다.

### ▶제13조 자유와 핍박

로잔언약은 잃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여 우리 주 예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잠시도 중단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다. 개종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선교와 복음전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날 개종을 강요하는 전도자들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다.

오히려 오해와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잃은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열심히 권면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WCC가 1960년대 후반부터 기독교인을 줄기차게 개종 강요자로 표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로잔언약은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고난을 받으며 부당하게 투옥되고 핍박을 받는 형제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그러나 "핍박이 없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어떤 대가를

치러더라도 복음전도에 충성할 희생적인 각오를 다짐한다.

로잔언약은 이 조항에서 정부의 본래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의 사명은 교회가 간섭받지 않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평화와 정의와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음을 표명하고, 또 유엔 인권선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부가 사랑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믿으며 전파할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WCC는 복음전도자들을 개종 강요자로 이해하고, 로잔운동은 복음전도자들을 핍박으로 양심의 자유와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 ▶제14조 성령의 능력

로잔언약의 이 조항은 WCC의 잘못된 성령관과 크게 대조되는 조목이다. 전술된 바와 같이 P. 데바난단은 1961년 제3차 WCC 인도 총회에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다(Zu Zeugen berufen)'는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타종교들을 '성령의 창조적인 사역에 대한 응답'이라 주장하였다. 비츠케(J. Wietzke)는 데바난단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신원두교(현대 힌두교) 속에서 보았다고 하며, 힌두교와 타종교들의 재부흥 발전을 바로 성령의 사역에 의한 응답이라고 주장한 바를 확인하고 있다.

Devananden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과 타종교들의 다양한 종교체함을 혼돈함으로써 영적 혼합주의적 종교 다원주의를 수립하려고 한 것이다. WCC '대화-프로그램'의 대부 사마르타에게는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영들을 오순절에 감림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자신의 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Mächte)이 구별되지 않는다. 사마르타가 창조자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신의 영을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피조물의 영들과 혼돈한 것은 매우 심각한 신학적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1991년 제7차 WCC총회의 혼합주의 영성에 관해 잘 알고 있다. '성령이여 오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총회 주제로 강연하였던 감사 정현경은 예수의 영과 더불어 한 맺혀 죽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사랑과 혼돈한 '성령'을 초혼하기도 하였다.

정현경의 신학에는 사머니즘과 범신론이 다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정현경은 창조주 자신의 영과 죽은 사람의 혼의 질적 차이를 전혀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한국 재래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신학교수가 되었고, 기독교 세계관을 소유하지 못한 채 WCC총회의 강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氣와도 동일시하고, 성령을 여성 신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사상이 관음으로부터 왔다고도 하며 "그녀를 맞으라"고도 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령을 모든 피조물, 사령, 동물 영, 자연 영, 기, 여신, 보살과 동일시함으로써 복음적인 신앙을 버리고 모든 종교혼합주의 영에 굴복한 것이다.

WCC의 성령관과는 대조적으로 로잔언약은 성령을 세상의 영도 아니고, 인간의 영도 아니고, 타종교들의 영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새로 부어 주신 약속된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영으로 설명한다(행 1:8, 2:38).

로잔언약은 이 조항에서 '성령의 능력'에 대한 고백을 아들에 관한 증거능력 내지 세계복음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회의 능력으로 설명한다(행 1:8). "하나님은 영이시니...(요 4:24)"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며, 또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고백한다.

로잔언약에서 하나님이 새로 우리

알사리는 젊은 스타일에 살아있는 곳

##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3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알사리는 맛있는 곳이죠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에게 보내주시는 영'은 이미 온 우주에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의 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 받은 영혼에게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 영은 창조 때부터 모든 피조물에게 임재해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계시고 또 이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을 말씀함이다(요 14:16f). 이 영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역사를 한다.

로잔언약은 성령을 선교의 영이라 고백한다. 성령이 내주시는 사람은 특별한 소명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다(고전 12:3, 요일 2:22f). 이 증거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 로잔언약은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모든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교회가 온 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제15조 그리스도의 재림론

이는 WCC와 관계 없이 로잔언약에만 있는 성경적 종말론이다. WCC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완성될 미래적 종말에 관해서는 전혀 있어버린 듯 하다. WCC의 '하나님 나라'는 살림을 온 피조물 위에 수립하는 것이다. WCC는 시종 살림왕국이라는 역사 내적 유토피아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WCC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유로 오직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schon jetzt)와, 옛 질서는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낙관적인 역사관에 심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WCC의 시야는 극단적으로 인간적이고 획적인 관심에 집착되고, 일반적으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질 미래적 천국(행 1:8-11)에 관한 종적 시야는 상실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로잔언약은 성경과 같이 미래적 종말관을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중간 기간'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선교사역 시대로 확인한다(마 24:14). 그러나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의 출현에 대해 경고했다. 이러한 종말개념은 WCC에서 오래 전 사라졌다. 그러므로 로잔언약은 미래적인(noch nicht)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이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WCC 사상을 철저히 거부한다.

로잔운동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과 통치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한다고 고백한다. 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그의 재림 시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 천국이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 나라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된다. 로잔언약은 성경의 약속과 같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구원과 심판이 완성될 것을 믿는다.그 때 까지 로잔운동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일할 것을 위해 엄숙히 언약한 것이다.

### ▶결론

현대의 대표적인 WCC의 신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원론적 역사관으로서 구속사와 세속사 내지 교회와 세상의 이중 역사를 부정한다. WCC신학의 공통성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하나도 제외될 수 없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 한 점이다. 교회는 세상의 일부일 뿐이다.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 또는 최후의 심판 같은 것은 놓쳐 버렸다.

둘째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 이웃을 만나고, 하나님께로의 회심 대신에 이웃에게로 회심하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회해 대신에 인류 공동체를 위한 화해만을 추구한다.

셋째로 복음의 절대성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거부되고, 그 대신 보편주의 및 상대주의의 시대적인 유행을 따라서, 다른 종교들 속에도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구원'까지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를 추구하게 되었다.

넷째로 위와 같은 신학적인 변화를 토대로 WCC는 반선교정책인 모라토orium(Moratorium)을 주장하고, 종래의 선교는 평화운동, 해방운동, 생명운동, 개발, 정의 및 인권운동 등으로 바뀌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께로의 회개도 성령의 역사도 없는(행2:28) 구원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었다(눅12:4,5).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들 내지 WCC 신학은 한편으로 만민의 평화와 인권 옹호, 그리고 경제 사회 정치적인 살림운동과 같은 실천을 강조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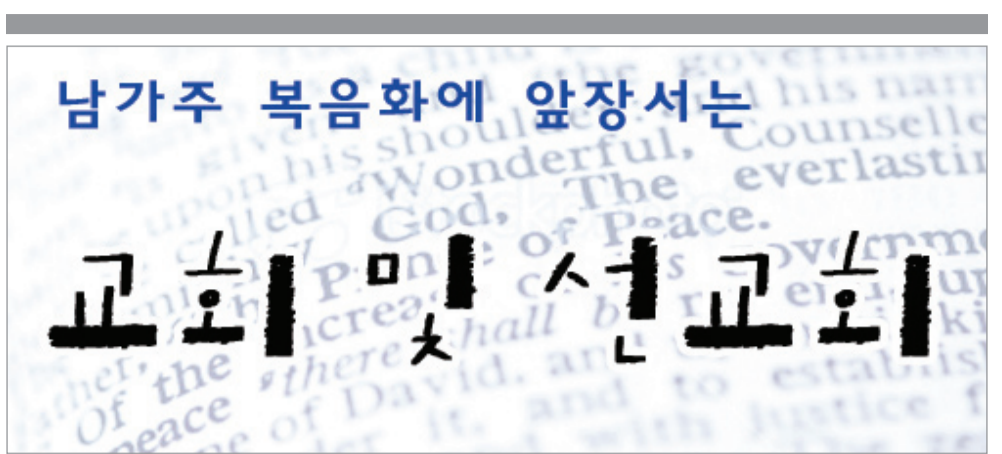
이와 대조적으로 로잔신학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둘째 개인적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의 유일성, 셋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성령에 대한 신앙, 넷째 모든 민족과 나라를 위한 선교와 복음화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로잔언약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한다는 세계 복음화라는 포괄성을 선교 목표로 알고 있다. 이 포괄성에는 형식적인 말이나 글로가 아니라 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전제가 확고하게 깔려 있다(요 1:12). 반면 WCC의 세계연합적 포괄주의는 로잔운동과 같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다른 것이다. WCC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일체 믿음을 요청하지 않는다. 로마서 3장 19-22절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됨을 명시하고 있다.

로잔언약은 WCC의 비복음적인 세계연합운동의 신학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여 세계복음화를 촉구하며, 어떤 환경에서라도 세계 복음화를 실행해야 할 의무를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잔(Lausanne) 참가자들은 복음주의에 헌신적이어야 하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하고, 복음전도, 구원, 그리고 회심에 대해 성경적 견해를 고수해야 하며,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일할 것을 언약하였다.

(이동주 소장(선교신학연구소))



**LA 지역**

<b>한현영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사배 오전 6:20 <b>갈릴리선교교회</b>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om	<b>강진웅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오전 6:00 (토) 2부예배 오전 10:30 유초등부 오후 12:45 3부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b>갈보리민음교회</b> 백년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b>엘리아 김 담임목사</b> <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서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b>박현성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b>박현성 담임목사</b> <b>나성열린문교회</b>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임시예배처소 3119 W. 6th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b>진유철 담임목사</b> <b>나성순복음교회</b>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b>박현성 담임목사</b> <b>나성한인교회</b>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 (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b>김광삼 담임목사</b> <b>나성제일교회</b>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b>정우성 담임목사</b> <b>남가주광염교회</b>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b>김요섭 담임목사</b> <b>남가주리디머교회</b>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5:30 <b>김성광 담임목사</b> <b>성재복음선교교회</b> 온 선도가 사랑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산에 가하는 교회 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327-9200, T. (213) 598-993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b>박승부 장로</b> 17,27,37기 수료생세출, 현재 4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를 통한 선교사 양성 -막달리나가 구제되어 온 마음으로 각종 질병 치료하는 의술 <b>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b> LA 2836 w 8th st #106 LA,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마켓 뒤) T. (213) 381-7273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주일 EM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b>최유형 담임목사</b> <b>세계선교교회</b> 하나님의교회, 사람들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 <b>김혜성 담임목사</b> <b>영생장로교회</b>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 <b>조인수 담임목사</b> <b>써니사이드교회</b> 하나님께 기쁘게 주님을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하는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b>김세환 담임목사</b> <b>엘에이연합감리교회</b>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오전 7:30 (토) <b>류종길 담임목사</b> <b>임마누엘선교교회</b> 초대교회의가정인모순, 성경적요노니니, 만민대상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b>정장수 담임목사</b> <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곧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b>신승훈 담임목사</b> <b>주님의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b>이명수 담임목사</b> <b>청운교회</b> 선교에 헌몰, 소.천.초.정신의 헌몰, 바른교회관의 헌몰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부설 : Naturo pathy Clinic(말-금) 진료문의 213) 505-7067 <b>대표 김갑선 목사</b> <b>지구촌 농업선교회</b>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b>이명수 담임목사</b> <b>청운교회</b> 선교에 헌몰, 소.천.초.정신의 헌몰, 바른교회관의 헌몰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졸업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b>김기섭 담임목사</b> <b>LA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배우고 이끄는 목회자, 영적 성장을 위한 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 올해 뉴욕 할렐루야대회 강사에 양병희 목사

### 뉴욕교협, 24일 첫 준비기도회 개최



양병희 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종훈 목사)가 24일 오전 10시 30분 뉴욕어린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서 '제1차 2013년 할렐루야 복음화대회 준비기도회'를 열고 뉴욕교협의 가장 큰 연중 행사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오는 7월 12~14일 3일간 퀸즈칼리지 콜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성회는 총 2100석 규모의 전통적 장소를 다시 빌린 만큼, 인원 동원을 비롯해 순조로운 진행으로 은혜로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준비기도회 횡수도 기존의 4차에서 총 6차까지 늘려 뉴욕교협 회원교회가 더욱 하나되어 협력하는 행사로 진행한다. 현재 뉴욕교협은 할렐루야대회를 위한 조직도 확정·발표했다.

24일 진행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할렐루야대회를 통한 뉴욕의 복음화를 비롯해 강사 양병희 목사, 안전사고 방지, 날씨 등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두고 기도했다. 또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교협은 추후 기도회 일정과 관련, ▲2차 기도회 5월 13일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3차 기도회 5월 30일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 ▲4차 기도회 6월 10일 은혜교회(담임 이승재 목사) ▲5차 기도회 7월 1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 ▲6차 기도회 7월 8일 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 등으로 공지했다.

올해 할렐루야대회는 본 대회 일정 직후인 7월 15일 뉴욕예일장로교회에서 강사 양병희 목사가 제지훈련을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 평신도와 목회자 교육이 연속해서 이뤄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2013년 할렐루야대회 강사 양병희 목사는 담임하는 영안교회를 개척 33년이 지난 현재 평균 주일예배 참석인원이 7천여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로 성장시켰고, 제지훈련을 통한 성장모델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배우고 있다. 예장 백석 총회장을 지내기도 한 양병희 목사는 활발한 교계 연합 활동으로 2011년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양병희 목사는 2010년도에 뉴욕목사회 주최 목회자세미나에서도 강사로 초청되는 등 뉴욕교계와 활발한 교류도 있었던 인물이다.

한편 올해 할렐루야 어린이대회는 성인대회와 일시가 장소가 동일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이며, 강사는 정승환 목사(퀸즈한인교회)다.

김대원 기자



# 교회혁신교회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유아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박해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유치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마원철 담임목사**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 맺는 은혜의 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T. (909) 945-9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청소년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등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망목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명(通)하여 민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어유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할로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할로 오전 5:30  
점심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 12:00 (분당)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Fax. 213) 402-5136

# 매주 수만명 앞에서 설교하는 조엘 오스틴, 그만의 비법은?

“사람을 의식 말고 일상의 언어로, 다른 설교자들의 주제 고민”



조엘 오스틴 목사

오스틴 목사는 처음 목사로서 강단에 섰을 때를 회고했다. 그는 “너무나도 긴장했고 두려웠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강대상을 꼭 잡고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강대상에 처음 올라 그가 한 생각은 재미있게도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지?”였다.

그러나 그는 곧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 자신을 응시하는 수많은 시신들, 마치 동네 YMCA에서 만나 농구를 즐기는 친구처럼 여기는 법을 말이다. 그는 첫째로 “일상의 언어로 설교한다”고 했다. 그는 전임 목사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존 오스틴 목사의 설교 스타일을 따라하려 했으나, 결국 ‘나만의 은사와 스타일대로 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둘째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다. 강단에 올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오히려 설교에 집중하기보다는 ‘만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저 사람,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왜 저래?”, “왜 저런 옷을 입고 교회에 왔지?” 등 말이다. 그래서 오스틴 목사는 설교하기 전, 자신이 미리 녹음해 둔 설교 원고를 외우면서 청중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훈련을 한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며 그들이 언급하는 주제 가운데 자신이 몰랐던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도 갖는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개척해 시무하던 레이크우드교회에 담임으로 취임해 미국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긍정의 힘 등의 저서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졌다.

김준형 기자

# 사우디, 이슬람 외의 종교는 예배당 건축 금지

몇몇 유럽 국가의 주교들이 사우디의 모함메드 엘 에이시(Mohammed el-Eissi) 사법부 장관을 비난하고 나섰다. 에이시 장관이 “이슬람의 요람인 사우디는, 이슬람 외 다른 어떤 종교의 예배 장소도 설립을 금할 것”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이시 장관의 발언은 사우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는 이번 주 유럽 국회의원들과 및 통상위원회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재확인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입장 때문에 오랜 비난에 직면해 있었다. 다른 종교의 예배당 건축을 금지하는 정책은 살라비아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살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 내에 두 가지 종교가 존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걸프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이같은 법률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러시아, 호주의 주교들은 사우디의 이슬람 법률 학자이자 지도자인 압델 아지즈 알 셰이크(Abdel Aziz al-Sheikh)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교회들의 철거를 요구하는 파드와(이슬람 법에 따른 결정이나 명령)를 발행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다. 기독교 성직자들이 무슬림을 향해 이같이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우디 왕은 종교와 문화 사이의 대화를 지지하기 위한 수많은 행동들을 보여왔다. 그러나 현재 사우디에 수백만 명의 크리스천 국외 거주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에 대한 엄격한 입장은 여전히 바티칸은 사우디 당국에 종교 차별 정책을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강혜진 기자

# 교회돈 흠쳐 달아났다 다시 찾아온 그의 고백은?

케빈 헤리스 씨, 약물 중독으로 저질렀던 죄 용서 구하고 눈물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지난 주일, 구속의 능력과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고 지역언론이 보도했다.



그리스침례교회

보도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한 남성이 발트우 카운티 카터스빌에 소재한 그리스침례교회에 한 남성이 침입해 교회 금고에 있던 수천달러의 현금과 크레디트 카드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보도되자 며칠 뒤, 범인 케빈 헤리스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이날 회중들 앞에 선 케빈 헤리스 씨는 떨리는 마음과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단 위로 걸어 나와 “2012년 5월 28일, 저는 이 교회를 침입해 당신들과 하나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난 나와 가까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리스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고 고백했다.

당시 그는 약물에 중독돼 있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교회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밝혔다. 그의 이같은 용기있는 고백에 교회 측은 용서의 뜻을 표했다.

그리스침례교회 담임인 랄프 젠킨스 목사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즉각적으로 용서할 준비가 돼있었다고 표현했다.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헤리스 씨에게 편지를 쓰거나, 그 중에 몇몇은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재판과정에서 헤리스 씨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젠킨스 목사는 “오늘 아침 예배 설교를 하

는 동안,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욱 그리스도를 달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다.

헤리스 씨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석 달간 감옥에서 보냈으며, 이후 몇 달 동안 중독치료를 받았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사회에 진 빚을 갚아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은 그가 거쳐야 하는 마지막 과정이었다.

“저는 이곳에 한가지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리스침례교회에 ‘당신들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의 것을 훔쳐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헤리스 씨는 물었고, 대답은 명료했다. 성도들은 지체없이 그의 주변에 둘러서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줬다.

헤리스 씨는 인터뷰에서 “나는 성도님들이 보여준 용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지지해 주었지만 저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며 눈물로 밝혔다. 케빈 헤리스 씨는 여전히 약물중독 치료 과정에 있으며,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디 김 기자



단편소설

고마운 왼손 (5·끝)

이호선의 얼굴에 틀림없다. 그와 헤어질 때 그대로의 얼굴이다. 수염이 까칠하게 자라...

건지 아닌지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 같다는 흐릿한 생각이 들었다.

시아에 녹색 가운을 입은 남자 간호사가 나무처럼 서 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 간호사 얼굴에 하얀 수염이 가득하다.

나는 세 시간을 넘게 마취약에 취해 있었다. 마취가 깨는지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나는 의사의 말이나 손끝이 붙어 있는 것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고 마취 중에 꿈처럼 보였던 노인과 호선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병원 복도를 걷는데 심한 구토증세가 있다. 의사는 마취가 풀리면서 구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한 손으로 겨우 얼굴을 닦고 나오는데 가벼운 느낌이 든다. 손에 통증과 무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는 꿈속에서 걷던 길을 가볍게 걷고 있는 느낌도 든다.

여유가 있으면서도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가 아까워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할 형편이 되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무겁고 힘들게 날아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이륙은 가볍게 날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글=주경로 작가

피의 자취를 따라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쳤던 로버트 쿨만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 병원에 한 소년이 상처를 입고 찾아왔습니다. 그 소년은 정글에서 나무를 베다가 크게 다쳐 상처를 입었는데 함께 나무를 베던 친구의 실수로 발톱꿈치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잠시 후 그 어머니가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의사들은 소년의 어머니가 어떻게 병원까지 올 수 있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자국은 교통 당한 사람이 걸어난 흔적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

입니다. 더구나 그 피가 사랑하는 아들이 흘린 피라는데, 그 자국을 놓칠 어머니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피의 자취보다는 화려한 성공의 자취를 추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지는교회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기독교인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장려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김함영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한중수 담임목사 얼바인침례교회

최상준 담임목사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지사른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경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박세록 대표 SAMCARE INTERNATIONAL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김삼도 목사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허기암 담임목사 남가주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제 \$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가정의 달 사랑 특별세일



워산과 개선과 워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 ea + tax

Made in USA

**Citric Acid**

Kosher Approved Organic

Net wt. 3oz. 226g 100% Pure Citric Acid Anhydrous CAS#

2oz 정량 정량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탈모닷컴(www.talmo.com)에서 베스트셀러인 최고급 제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탈환 프리미엄 제품인데 한국에서 298,000원에 팔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300불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탈모에 고심하거나 발모를 원하시는 분이나 변비가 심하시거나 다이어트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 특히 피부건강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300불어치 구입하시는 분들께 300불짜리 한 박스(6개 작은박스들이)를 드립니다.

## HQ구연산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프로모션 A

~~\$280~~ **\$100** +tax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프로모션 B

~~\$270~~ **\$100** +tax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프로모션 C

~~\$280~~ **\$100**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300불 HQ헬스 제품 구매시 \$300 탈환제품 (제품 품질일때까지)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소금 1봉지

무료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어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성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코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완쾌되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감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기편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내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취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은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용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올림픽파크센터 북동쪽 코너 단층 상가건물)

##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Life

## 성지순례 칼럼

###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장 친 광야

히브리어로는 구별이 가능한데, 우리 성경에서는 '신 광야'로 번역되어 있어서 상당히 혼선을 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다.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 친' 또는 '친'이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통과한 광야다.



김용규 목사

이 광야는 팔레스틴의 남쪽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민 13:21). 이곳에 가데스 바네야가 있다(민 20:1) 그러므로 친 광야는 바란 광야와 접해 있는 것이다(민 13:26). 또한 여호수아 15장 3절 "아그람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러"라는 말씀으로 보아, 친 광야는 약속의 땅 남쪽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곳 가데스 바네야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이 파송되었고, '므리바의 물' 사건도 이곳에서 일어났다(민 13:21).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불모의 광야를 형성하고 있는 이곳은, 어느 시대에도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없다. 고립된 산, 분지 등의 착잡하고 음산한 광야. 바로 이것이 친 광야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친 광야 가데스에 거할 때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

서 죽게 한다고 원망을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현장을 요르단의 페트라 입구에 있는 모세의 우물이라고 믿고 있으며, 인터넷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페트라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곳을 므리바 사건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성지를 제대로 알려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므리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가데스 바네야로, 시나이 반도 북쪽에 위치한, 네 개의 샘물이 있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추정한다. 샘이 많은 이 지역은 네게브 사막 지방에서 가장 넓으며, 브엘세바 남서쪽 약

80km 지점에 있고, 지중해로부터는 동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있다. '가데스' 원어의 뜻은 '거룩하다'이다. 오아시스에 이러한 명칭을 붙인 것은, 사막지대에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거룩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창세기 14장 7절에서 이곳은 '엔미스밧'이란 이름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이름은 '심판의 샘'이란 뜻으로,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유목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여기서 해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사건으로 인해, 이곳을 '므리바의 물' 즉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 물이 풍부 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하지 못한 것은 가뭄으로 인하여 오아시스가 말랐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이곳도 종종 가뭄이 발생한다.

가데스 바네야에서 열두 정탐꾼들의 불신앙적 보고로 인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데스에 돌아온 시점에서, 다

시 물 문제로 인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단지 자신들이 갖고자 하는 것을 갖게 해주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언제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친 광야의 가데스 바네야에 진출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하여 각 지파의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다. 40일간 가나안 땅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온 회중 앞에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열 사람은 가나안 거민들과 성읍이 심히 견고하여 도저히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 그 와중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보고하였다.

팔레스틴 지역, 특히 헤브론 지역은 포도나 석류, 무화과나무와 같은 유실수들이 성장하기에 매우 적합한 토양과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

다. 지금도 헤브론의 포도는 그 맛이 유명하다.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었다.

그러나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외부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선택된 백성들이 싸우는 모든 전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정탐꾼들의 보고만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 결과 가나안 땅 입성이 40년이나 늦춰지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곳은 이곳 친 광야이다(신 1:46). 이 지역은 브엘세바 남쪽 80km 떨어진 불모지로, 오늘날의 네게브 사막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오아시스가 가데스 바네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최악의 생존 조건 속에서 40년을 보낸 것이다.

령천교회 김용규 중동선교사

## 건강 칼럼



### 여드름흉터 해결 해주는 프락셀 어떻게 선택할까

불경기일수록 립스틱이 잘 팔리는 것은 하나의 경제 이론이 됐다. 아무리 환율이 올라 제품 가격이 상승되었다 할지라도 백화점은 늘 붐빈다.

그러나, 큰맘 먹고 구입한 고가의 화장품이라도 여드름 흉터를 열게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요즘 여드름흉터를 시술을 이용해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양한 시술 가운데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프락셀이다.

이미 한번쯤 프락셀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선택에 어려움이 없을 테지만, 프락셀 시술 후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프락셀을 선택하는 일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이 시술은 스타룩스, 펄, 주비아, 에코, 어펄, 모자이크, 써모셀, 프락

셀제나, 셀라스 등 종류가 다양지만 제품이 많아 단번에 선택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시술시 가장 따져봐야 할 것은 프락셀 계열의 원리인데, 시술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그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

양재피부과 이너뷰피부클리닉 김현 원장은 "프락셀은 딱지가 지는 프락셀 계열(박피성프락셀), 딱지가 지지 않는 프락셀 계열(비박피성

프락셀)로 나눌 수 있다"며 "여러 종류의 프락셀 시술을 받은 후 효과를 보거나 못 보고의 차이는 시술 상품이 좋고 나쁨보다는 프락셀 계열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고 전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흉조만 지고 딱지가 지지 않는 프락셀 계열은 단독으로는 크게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딱지가 지

지 않는 프락셀 계열로 재생효과 정도를 얻었을지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딱지가 지는 계열의 프락셀로 시술하는 경우도 시술 깊이나 노후에 의해서 시술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우선 프락셀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시술코스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신도가 변해야 교회가 산다'

11년간 300명 전도한

### 김인태 안수집사 초청 간증집회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11년간 300명 전도한 전도왕 김인태 안수집사가 말하는 전도노하우.....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전 성경을 7번이나 찢었던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변화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전도집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정

5월 4일 오후 6시 30분  
감사한인교회(김영길목사)  
문의:714-521-0991

5월 26일 주일 11시  
에덴선교교회(윤석길목사)  
문의:951-529-1004

약력  
일본 아바노 아이코 미용학교 졸업  
독일 슈바츠코프 미용학교 한국강사  
영국 알란 인터내셔널 미용학교 강사  
88년 한국대표 아시아 미용선수권대회 우승  
프로 태권도시범단 봉사,공인태권도 4단  
나성 순복음 교회 안수집사  
나성 순복음 교회 11년째 전도왕

주 관 : 감사한인교회, 나성 소망교회, 남가주 광영교회, 에덴선교교회 후 원 : 기독일보



### 동역자 간의 갈등



현순호 목사

바울은 동역자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간주했다. 흔히 남을 위해 한평생 희생과 봉사를 하는 동역자 사이는 언제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기대하는 만큼은 아닌 것 같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같이 따라오는 것 중의 하나가 타인과의 갈등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갈등은 계속 존재했다. 하루는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뒤따라 오는 제자들은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있었다. 내용인즉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선생님이 왕이 될텐데 누가 국무총리를 하고 누가 비서실장을 할 것인가였다. 그 틈에 한 어머니가 끼어들어 “선생님, 이번에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을 선생님의 좌우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자 그 꼴을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분통이 터져 그 어머니와 두 제자들을 증오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 밑에서 몇 년씩 훈련을 받아도 못 고치는 병은 남보다 높아지려는 본성이다.

여기서 잠깐 미국 이민역사를 살펴보자. 1620년 이래 많은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새 땅으로 몰려오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 심한 갈등이 생겨 결국 신앙의 동지들이 갈라져 그 일부는 정착지에서 쫓겨나듯 로드 섬(Rhode Island)으로 갔고 그

후에도 일부는 심한 갈등에 밀려 다시 쫓겨난다. 이유인즉 미국의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팔고, 죽이는 것이나 여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된다고 강조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었다.

오늘날에도 미국이나 한국의 교계에서 핑신도보다 제직 간에 심한 갈등이 더 많고 나아가 목사를 포함한 당회원들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그 원인은 남을 섬기려는 예수님의 교훈은 뒷전으로 밀어내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가능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윈-윈(Win-Win)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자기 주장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고 생각해 절대 양보를 안한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시 하고 상대를 마귀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역자 간의 갈등은 일반인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나는 바나바에게서 롤 모델을 찾는다.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부자지간처럼 되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숙하는 심정으로 다소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그를 찾아가 안디옥교회로 인도해서 사도가 되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을 반신반의 할 때 그들을 찾아가 바울을 동역자로 받아들이도록 한 사람이 바나바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후배인 바울의 인기가 선배인 자기를 앞지를 때 그도 사람인데 왜 갈등이 없었을까? 하지만 사랑으로 극복한다. 또 다른 예로 바나바와 사도 베드로가 몇 명의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나타난 바울은 신앙의 대선배들을 향해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책망했다. 그 때 바나바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언제부터

저렇게 당당해지고 교만해졌나?’고 생각할 법도 하다. 그러나 그는 웃으며 받아들였다. 더욱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될 때는 두 사람이 크게 부딪친다. 제1차 전도여행 도중 도망간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에게 바울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바나바는 실수했던 젊은 마가에 또 한번의 기회를 주자는 관용이 었지만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심하게 다투고 헤어져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떠났다. 얼마나 섭섭했을까! 바울 자신도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실수한 마가를 다시 훈련시키려는 자기에게 비판적으로 맞설 때 울고 싶었을 것 같다. 그래도 바나바는 웃으며 잘 넘겼다.

동역자 간에도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눈물겨운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좋게 해결할 수 있다. 남을 나보다 더 높이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

### 좋은 글을 씀시다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우리는 모두 작가입니다. 자기 인생을 써 나아가는 작가들입니다.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드라마’를 써 내려갑니다. 아픈 사연들과 굴곡진 사건들로 얼룩진 비극을 쓰기도 하고, 신명나는 이야기들로 희극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랏차차차!” 하며 젓 먹던 힘까지 다해 인생 한방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는 반전 드라마를 씁니다.

깊은 생각과 목상이 있는 중후한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새털처럼 가벼운 미셀러니를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벤허’나 ‘퀴바디스’같은 명작을 쓰기도 하고,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짜증나는 삼류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면으로

든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글’을 쓰는 작가들입니다.

좋은 작품을 쓰려면 남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인생 스토리를 멋지게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의 것을 학습하고, 연구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잘 응용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따라 하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인생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세 것이 없습니다(전도서 1: 9). 기발하고 독특한 이야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벌써 시도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남의 이야기들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각 개인의 전기문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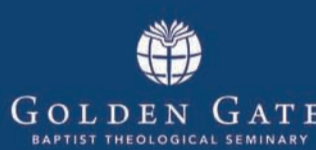
신화화되고 왜곡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 개인의 전기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 여정 속에서 삶을 풀어가는 오묘한 논리와 지혜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잘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잘 읽어야 합니다.

미완성으로 작품을 마감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써야 합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판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작품을 다 써서 완성했거나, 이제 더 이상 쓸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우리 인생 이야기의 최고 독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빨리 읽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잘 된 작품은 책으로 출간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고 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도

서관에 진열하십시오. 물론, 이 땅의 도서관에 진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서관에 진열된 것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출판하신 편집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우리의 숨겨진 부분들과 왜곡된 부분들까지 모두 다 아시고 바로 잡기 때문입니다. 맛깔나는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를 써야 하는데 남은 페이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잘된 책들은 끝부분이 재미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얼마나 흥미진진한 책들이 많이 있을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7월 15일 (에버지전서 [PRE-APPLICATION]은 6월 15일)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맥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김인호 CPA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성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소 : 3240 Wilshire Blvd., #250 Los Angeles, CA 90010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회 중회장 황수원목사, 중장 강부웅 박사, 재단 이사장 류당열 목사



### 소울 플레이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카모메 식당〉이라는 제목의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대강의 줄거리는 다 음과 같습니다. 핀란드의 헬싱키에 사는 한 일본 여성 '사치에'는 일본 식당 을 오픈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어 가도 손님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아는 핀란드 청년 '토미' 가 식당문을 두드립니다.

이 첫 손님을 위해서 '사치에'는 식당이 존재하는 한 그를 위해서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사치에'는 홀로 핀란드를 여행하는 '미도리'라는 이름의 일본 여성에게 자신의 거처를 기꺼이 제공합니다.

사치에는 정성을 다해 먹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정성스레 요리를 만듭니다. 이 같은 '사치에'의 마음이 통했는지 매일같이 식당 방문만 보며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치에'가

만든 시나몬 롤의 향기에 끌려 드디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카모메 식당에 저마다의 사연을 들고와 사치에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맛보면서 힐링을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며 행복한 표정으로 정성껏 요리를 만드는 '사치에'와 그 요리를 맛보는 사람들은 피차 간에 무척이나 행복해 합니다.

이렇게 영화의 플롯은 무척 단순합니다. 이런 단순하디 단순한 플롯을 가지고 90분 분량의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은 따스한 인간애의 교류를 통해서 형성되는, 작지만 감동적인 힐링의 장면들을 화면 전체에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건 '따뜻한 마음'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감동적인 힐링을 만들어냅니다. 조그마

한 식당이지만 식당 주인 '사치에'의 따스한 마음은 힐링의 출발이 됩니다. 사치에는 자신의 식당을 '소울 플레이스(Soul Place)'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파는 음식을 '소울 푸드(Soul Food)'라 생각합니다. '소울'이란 말은 '감동'을 뜻합니다. 단지 자신의 식당이 음식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장소라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드는 음식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자세는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마음을 녹이며 결국 '힐링(Healing)'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제공하는 결과를 이룹니다.

밥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식당이 감동의 힐링의 장소로 묘사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소울 플레이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식당은 음식을 파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뛰어넘는 '감동 창출'의 장소로 승화시킬 때 식당은 힐링의 장소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더 가치있고 소중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야말로 진정한 '소울 플레이스'인 줄 압니다. 따스한 마음과 사랑의 집합체로서 교회는 감동을 창출하고 결국 진정한 힐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영혼의 고향,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며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 마침내 행복함의 절정이 표현될 수 있는 감동의 장소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소울 플레이스'가 되기 위해선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말입니다. 오늘은 카모메 식당 주인 '사치에'가 목회자인 저를 참 많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귀한 교훈을 줍니다.

###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열째 지팡이



이학진 장로  
〈성경 통독과 이해를 위한  
씩난 지팡이〉 저자

#### ▶사복음서의 통합

복음서란 하나님 나라의 회복(구원)이라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복음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소식'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비록 복음서가 '누구에 의한'이라고 구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복음은 단 하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부들의 증언을 통해 볼 때도 확인됩니다.

그러다가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27권의 신약성경이 확정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네 권의 복음서가 채택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를 시간대별로 통합하면 각 복음서를 서로 비교하게 되어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마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의 인적 의미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지만,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 생명, 빛의 신적 의미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는 순하주동, 동서남북과 같이 서로 보완하여 말씀을 완성하는 것(2세기 말 프랑스 리옹의 감독, 이레니우스)임을 알게 되며 하나의 복음을 네 가지로 변주하여 표현한 음악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복음서의 통합이 요

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복음서를 읽기 쉽게 연대적으로 배열·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복음서의 통합이 요구됩니다.

#### ▶사복음서의 구분과 특징

예수님의 생애를 서술한, 그래서 역사서로 분류되기도 하는 사복음서를 그 성격으로 구분하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관복음이라 함은 보는 관점이 같은 복음서로 마태, 마가, 누가의 세 복음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관복음서는 사역의 내용이나 말씀에 대한 비유가 주를 이루며, 공관복음 중의 가장 짧은 마가복음은 103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의 98개가 마태복음에 있으며 50개 이상이 누가복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긴 설교들로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요한복음은 비판적 학자(독일계 신학자)들에 의하여 예수의 역사적인 증언이라기보다는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는 책으로만 봐왔는데 도드학파(C.H. Dodd, 영미계 학파)의 존 로빈슨(J.A.T. Robinson)에 의하여 요한복음의 우선성과 역사성이 주장되었습니다.

가령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서너번 정도 방문한 요한복음의 기록은 공관복음의 기록보다 더 역사적이며 신빙성이 있음으로 간주됩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다른 점은

우선 공관복음의 예수님의 주된 언어는 '하나님 나라'인데 비해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나 '생명'이란 단어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13개의 비유는 요한복음에 소개되어 있지 않고, 마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치유와 이적을 행한 예수님의 행적은 역시 요한복음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으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6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표적들인 이유는 단순히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증거(요 4:48)뿐만 아니라 그 표적의 행위자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서(요 3:2, 6:14, 7:31)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요 9:16)임을 밝히기 때문이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의 인성의 본질(신성)을 확실히 입증해 줍니다(요 2:23, 12:37).

그리고 잡히시기 직전, 공관복음에 있는(마 24:3-46 등) 심판에 대한 감람산 강설은 요한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술되어 있는 다락방 강화라 칭하는 말씀(요 14:1-17:26)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사후에 오실 성령님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공관복음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의 특징을 각권으로 살펴보면, (1)마태복음은 '사자(獅子) 복음'으로 (땅의) 왕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마태복음 1장 1절에 왕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는 유대인들과 개종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주로 설명하며, 구약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2)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으로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여줍니다. 소는 전적으로 희생물로 비유되며, 실질적인 로마인들을 위해 기록하였으므로 구약이나 예수님의 교훈보다 병을 고치시며 이적을 행한 행적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라고 하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부터 열두 살까지의 사람으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헬라인(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로 예수님의 생애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많이 기록하였으며 예수님의 개인적 생애와 인적 묘사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4)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의 별명을 '독수리 복음(하늘의 왕)'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이시니이다"(요 20:28)라고 고백함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은 교회(민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그 주제를 선포하고 사역이나 비유 같은 사실적인 행적보다 영적이거나 신령한 주제 해설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여드름, 성공률 99%

##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 복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REVIEW

## 모세·세레 요한·바울, '에니어그램'으로 보면 같은 성격유형?

에니어그램(Enneagram)이란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지표이자 인간 이해의 틀이며, 숫자 9를 뜻하는 희랍어 'ennear'와 점·선·도형을 뜻하는 'grammos'의 합성어로 '9개의 점이 있는 도형'이라는 뜻이다.

〈에니어그램으로 보는 성서 인물 이야기(삼인)〉는 성경 인물들을 에니어그램 9가지 유형으로 관찰하면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려는 책이다. 저자인 김영운 목사(한양대학교교회)는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어느 작품 속에 나타난 인물들보다 현실적"이라며 "성서에는 비극과 희극, 동화의 주인공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고 말한다.



### 김영운 목사의 〈에니어그램으로 보는 성서 인물 이야기〉

에니어그램으로 보는 성서 인물 이야기  
김영운 | 삼인 | 328쪽

책은 1번 '온화한 개혁가' 유형에 모세와 세레 요한, 바울, 2번 '겸손한 봉사자' 유형에 룯과 막달라 마

리아, 사도 요한, 3번 '신실한 성취자'에 야곱과 사무엘, 가롯 유다, 4번 '침착한 예술가'형으로 욥과 요

나, 이사야, 5번 '조연하게 행동하는 지식인'에 요셉과 도마, 니고데모, 6번 '용감한 충성가'에 이삭과 여호

수아, 베드로, 7번 '맑은 정신의 열성가' 압살롬과 느헤미야, 솔로몬, 8번 '소탈한 지도자' 다윗과 에스더, 헤롯, 9번 '행동하는 평화주의자' 아브라함과 요나단과 바나바를 각각 분석한다.

저자는 "에니어그램은 자신도 모르게 영위하던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찾는 열쇠"라며 "이를 터득한 사람은 나이와 성별, 지위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더 너그럽게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최선을 끌어내는 일에 이바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 카피라이터 정철의 발상 전환, "당신의 뇌를 깨워라"

생각이 꼭 막혀 도무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가? 어제와 똑같은 일상에 지쳐 사는 것이 짜증나는가? 굳을 대로 굳어버린 머리에 날개를 달아주고, 무묘한 하루하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홉 가지 방법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MBC에드컴을 시작으로 광고계에 첫 발을 디딘 후 기아자동차, 하이트맥주, 이랜드, 프렌치카페, 삼양라면 등 굵직한 광고를 줄줄이 히트시킨 카피라이터 정철은,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남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지,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공개한다.

책에서 소개하는 발상전환의 9가지 노하우는 29년간이나 광고업계



### 머리를 가지고 신나게 노는 9가지 방법 '머리를 9하라'

머리를 가지고 신나게 노는 9가지 방법 '머리를 9하라'  
정철 | 리더스북 | 328쪽

의 실력자로 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낸 저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교과서식의 딱딱한 이론이나 미사여구는 한 줄도 들어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정석'이나 '교과서'라는 수식어보다, '경험서', '결과보고서'라는 말이 어울린다.

그간 무수한 강연에서 "도대체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 "고정관념을 털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라는 질문을 받아온 저자는 발상전환과 창의력의 실전 결과물을 카피라이터 특유의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

다. 전작 《내 머리 사용법》, 《불법사전》, 《학교 밖 선생님 365》의 촌철살인적인 짧은 글들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숨은 이야기도 날 날이 공개한다.

책값이 아깝지 않으려면 읽고 난 후 머리가 실제로 말랑말랑해지는 변화가 따라야 한다며, 지금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지침도 아낌없이 제공한다.

광고쟁이 특유의 역발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답답한 고정관념을 깨부수며 재미있는 일상을 유쾌하게 바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김은애 기자

**포르테**  
**세종 송보감**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식약청 공인)  
"춤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 KFDA공인 건강기능식품  
▪ 1박스(1개월분) 195불 ▪ 1박스(3개월분) 360불  
**Biotech**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오로청보감** **세종 뇌보감 골드** **진짜 발효삼? 진짜 발효삼**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  
\*HYUNDAI Assurance  
**Tel.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 (미주복음방송국4층)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

**WIN HYUNDAI at El Monte**  
**EQUUS SIGNATURE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499 Lease** per month plus tax

**SONAT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109 Lease** per month plus tax

**ELANTR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  
**\$99 Lease** per month plus tax

**ACCENT GLS MT 2013** VIN# NDU423702  
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89 Lease** per month plus tax

한인담당 Alex Shin  
www.winhyundai.com  
El Monte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5월8일까지입니다.  
**Assurance**  
**Tel. 562 900 2399**  
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



<나는 천국을 보았다>와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 하버드 뇌의학자 7일간 혼수상태 후 “천국은 실재”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본 알렉산더 | 김영사 | 252쪽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에드워드 도넬리 | 부흥과개혁사 | 264쪽

‘천국을 다녀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최근에도 이에 대해 여러 권의 책이 나왔다(《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크리스찬서적)》, 《3일(크리스천서적)》 등).

하지만 <나는 천국을 보았다(Proof of Heaven·김영사)>가 ‘비성경적’·‘신사도적’ 등 혹평과 논란을 겪는 대신, 출시되자마자 미국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이유는 저자의 ‘이력(履歷)’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과학 학술지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의학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발표하는 등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해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라는 직함만으로 충분한 이본 알렉산더(Eben Alexander)는 “현대의학의 도구를 사용해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며, 인체와 두뇌의 작동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일”을 소명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 11월 10일, 54세의 나이에 희귀한 질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다. 아팠던 적이 없었던 그는 응급실에 누워 고통을 지르며 뒤틀리고 있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급히 달려왔고, 신을 믿지 않던 그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외친 뒤 7일간 혼수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대뇌 심피질, 즉 우리를 인간이게끔 해주는 뇌의 겉표면이 기능을 멈춰버렸다.”

그는 ‘그날’ 이전 신경외과 의사로서 심장마비가 일어난 후 ‘신기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순전히 환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토록 자주 보고되는 내세 경험을 ‘뇌에 기반한 현상’이라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뇌는 당시 꺼져버렸다. “물리적 뇌의 한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의 세계와 직면하게 된 것이다.”

7일간 그는 황금빛의 새하얀 가

는 빛줄기들, 전원 풍경, 길동무를 해 주고 있는 구체 모양의 반짝이는 존재 등을 봤다. 그는 다른 임사 체험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죽은 상태’가 됨으로써 더 깊숙한 곳까지 여행했고, ‘중심근원(The Core)’에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느낀 다음 눈을 떴다. 하지만 그는 말을 아낀다. “내 남은 평생 노력한다 해도, 내게 다가온 이 실재를 제대로 보여 주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묘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임사체험의 완결판’이라 표현하

처럼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버티고 있었고, 따라서 그 세계 전체가 실존한다는 것에도 의심이 있었지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사후생(On Life After Death)>을 읽으며 확신을 갖게 된다. 과학을 들이대며 우리의 복음전도에 ‘회의적’인 이들에게 전해줄 만한 책.

“나의 경험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 내가 틀렸음을 어떻게 해서든 입증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더 잘 알고 있

조직신학) 784쪽 중 오직 한 페이지에만 천국의 주제를 할당한다. 천국은 자주 설교되지도 않는다.” 그 이유로 도넬리는 우리 대부분이 너무나 안락한 ‘현재의 세상’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으며, 어차피 갈 곳인데 벌써부터 생각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곳에 가고픈 ‘갈망’이 부족해서 등을 든다.

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실상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천국에 대해 혼합과 거짓으로 뒤범

천국을 묘사하기 좋아하는 방법은 매우 분명하다는 것. “신약을 보면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성경 어느 곳에서도 신자들이 죽을 때 ‘천국으로 간다’는 언급이 없다는 점은 흥미롭다. 대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우리가 천국에서 보기 원하는 분도 예수님이다.”

천국은 예수님의 집이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분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천국 교리의 중심이다. 그리스도는 천국 복의 핵심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한다. 천국에서 우리 영혼은 그분을 닮아가고, 완전해져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 속에서 새로운 친밀감을 즐길 것이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기 위함이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많은 것들이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것은 천국을 묘사하기에 인간 저자들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 저자들의 목적이 복음적이고 목회적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땅의 언어와 인간이 가진 오감(五感)으로는 이를 표현하고 체험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어찌 됐든 영원한 기쁨과 교제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는 만나야 하므로, 그곳에서의 ‘더 큰 기쁨’을 위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초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는 당시 7일간의 체험으로, 그는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 인간의 체험이 무덤을 넘어서까지 계속된다는 것, 우리를 하나하나를 사랑하며 우주와 모든 존재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아가는지 보살피고 있는 그런 신(God)의 응시 하에 우리 의식은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간 그곳은 실재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삶이 완전히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곳은 실재(real)였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의 이 삶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삶에 가치를 느끼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삶의 진정한 맥락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 그는 이후 교회를 찾아갔고, “신을 믿게 되었다기보다는, 신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놀라우리만치 실재적이었던 체험’ 후에도, 수많은 ‘회의자들’

다. 나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저 너머의 세계에서 만난 존재들을 위해서나, 내가 경험한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며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 과학자이자 진리를 구하는 자로서,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의사로서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살아 있는 증거이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성경과 교리’를 중시하는 기독교 인이라면, 북아일랜드 뉴타운에버트리니티 리폼드장로교회 목회자인 에드워드 도넬리(Edward Donnelly)가 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부흥과개혁사)>을 함께 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알렉산더는 ‘보았고’, 도넬리는 ‘들었다’.

알렉산더의 주위 사람들은 그가 보고 온 천국에 대해 ‘틀렸음’을 입증하고 싶었지만, 천국은 교리적으로도 무시당하고 있다는 게 도넬리의 생각이다. “루이스 벌코프는 <

벽대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주제는 중요하다. 거기다 이 주제는 가장 강력한 복음적 무기들 중 하나이고,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섬김의 유용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안에서 일차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천국을 설명하신다. 당신의 삶과 마음 속에, 오늘 그리고 내일, 지금 여기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천국의 교리는 반짝이는 빛으로 계시된다.”

저자의 관점은 간단하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은유와 상상의 그림들은 신비하면서도 어렵지만, 성경이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 장로회국제연합신학대학 · 대학원

##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 2013년도 가을학기 남 · 여 학생모집 (신입 · 편입 · 온라인 · 장학생)

본 신학대학은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양성하여 세상에 보내고자 합니다. 본 신학대학은 California 주 정부의 승인을 받고 Tax Regist No. 와 California Education School Code No. 도 받아 정식 등록된 학교로서 본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삼위일체 장로교회 국제 연합총회(Trinity International Presbyterian Alliance) 교단에서 목사안수 또는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습니다.

학사과정	교육학사 교회음악 학사 신학 학사	Bachelor of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Church Music Bachelor of Theology
석사과정	기독교 교육학 석사 교회 음악 석사 신학석사 목회학 석사 선교학 석사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Theology Master of Divinity Master of Missology
박사과정	목회학 박사 선교학 박사 기독교 교육학 박사 신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Doctor of Missology Doctor of Christian Education Doctor of Theology Honorary Doctor of Divinity

개 강 : 2013년 9월 10일(화)  
입 학 안 내 : 입학원서 본교소정 양식 1통  
접 수 : 수시로 입학  
온라인 지원 : 수시로 접수  
전 화 : 714)767-1806 714)393-7952(cp)  
주 소 : 1749 West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총 장 : 정영수 박사 (Dr. Paul Jung; Ph.d., D., D. Min.)  
이사장 : Paul I. Junn 목사(CEO)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 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0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방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장,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전기, 철공**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용접, 게이트** 경남 철공소

**모터 수리**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10% 할인

✓브레이크 ✓투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Excel Legal Center (엑셀법률센터)**

- ✓ 영주권, 시민권 신청
- ✓ 주식회사,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
- ✓ 혼인/이혼, E2 투자
- ✓ 퇴거, 소액재판, 파산
- ✓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 ✓ 노인시민아파트 신청대행

☎ 213-365-6622 (7가+사우스베일리인외과대학 옆 흰색빌딩)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로템**

웹디자인: 쇼핑몰, e-commerce, cms 웹사이트, 온라인 배너, 웹사이트 유지 및 보수

그래픽디자인: 명함, 브로셔, 신문/잡지 광고, 배너

Rodem N. Hwang Designer  
213-587-3498  
kprodemh@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 후 배달**

봄맞이 세일 **목회자님 위한 세일 20%**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라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 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T.213.386.5858 / C.213.663.9556



美 칼럼니스트, 10년간의 상담 결과 발견한 공통점 정리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6가지 근본적 처방은



톰 S. 레이너

칼럼니스트 톰 S. 레이너(Thom S. Rainer)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죽어가는 교회가 생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칼럼에서 "나는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상담해 왔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안다고 할 수 있

다"고 말했다.

레이너는 칼럼 제목에 대해 "살짝 아이러니하다. 만약 교회가 죽어간다면, 생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죽어가는 미국 교회 가운데, 특별한 예외가 있다. 1,000개 가운데 하나로, 독특한 환경으로 교회가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거의 사망 직전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러한 교회들은 드물지만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관찰한 이야기들이 각각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었지만, 나는 이 가운데 일부 공통점을 발견했다. 나의 짧은 글은 죽어가는 교회들에 대한 6가지 '빠른 처방'이 아니다. 반대로 각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취해야 할 6가지 '근본적인 단계'라고 했다.

첫째, 지도자는 반드시 깨어나야 하고, 그에게 들어가는 개인적인 비

용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향해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도자는 전형적으로 교회에 새로운 목사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둘째, 교회 내 중요한 그룹들은 그들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룹의 중요성은 그들의 규모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 내 활발한 멤버들의 대다수가 중요 그룹이 될 수 있다. 또는 중요성이 그룹 내 영향력이 될 수도 있다. 이 그룹은 현실에 대한 고��스러운 자각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

셋째, 이들은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한다. 이들은 공동체에 이르는 것을 실패했다. 또한 어제의 우상을 붙들고 있었다. 이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안에서만 평안함을 얻

었다. 이들은 교회를 자신들의 필요와 개인적인 선호가 만족되는 곳으로 보았다.

넷째, 교회 단체는 고백하고 자포자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교회는 더 이상 그들이 과거에 했던 길을 미래에도 바랄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숙이고, 하나님의 길만을 구해야 한다.

다섯째, 교회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가진 죄의 비통함을 풀 수가 없다. 교인들은 반드시 공동체에 들어가야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 다가갈 수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또한 시간, 돈, 마음을 희생적으로

주어야 한다. 공동체는 이러한 교인들에게 놀라게 될 것이다.

여섯째, 교회는 반드시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 만약 교회가 공동체에 다가간다면, 공동체는 교회에 다가올 것이다. 이들은 더욱 가난한 자들일 수 있고, 피부색이 다른 자들일 수 있다. 이들은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교회 문화와 다른 문화의 사람일 수 있다. 만약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에 참으로 다가간다면, 기뻐하면서 공동체가 교회의 통제권을 갖도록 할 것이다. 이같은 태도는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라고 말하는 태도이다. 끝으로 그는 "나는 기적의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더욱 기대해야 하고,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칼럼을 맺었다.

가정 칼럼

중년부부의 신앙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선이 목사

낭만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을 대상이 완전하다는 환상을 갖는다. 또한 연인들은 그러한 놀라운 감정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불행하게도 사랑에 빠지는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들이 로맨틱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기간은 대략 2년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은 무덤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결혼을 무덤이 되게 하느냐 화원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삼을 든 두 남

녀에 달려 있다.

감정적 열정의 시기가 끝나면 부부는 현실로 돌아와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 환상은 사라지고 각자의 욕망, 감정, 생각, 행동이 강하게 표출된다. 부부는 하나가 아니라 두 인격인 것이다. 부부는 처음에 빠졌던 사랑에서 벗어난다. 그들의 마음은 융화되지 못하고 이제 현실이라는 파도에 부딪혀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제 부부는 사랑에 빠진 경험이 일시적인 감정 고조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자와의 진정한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사랑은 본능이 아닌 이성과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노력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사랑에 사로잡힌 경험은 부부 사랑의 시작에 불과하다. 부부 사랑의 완성에는 이성과 감성과 의지에 의한 사랑이다. 성경에서 신앙으로 하나 되어 사랑을 만들어가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남편 아굴라 부부를 발견할 수 있다.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 온지라"(행 18:2).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받고 쫓겨나 고린도에 온 것은 환경과 형편에 의한 것이었지만,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를 영접하여 함께 거처하며 일을 한 것, 복음을 위해 바울을 따라 예베소에 온 것과 거기에 그냥 머물기로 결정한 것, 집을 개방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모임을 갖도록 주선한 일, 목숨을 다 하여 바울 사도를 뒷바라지한 일 등은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선택이었다.

특이한 점은 누가와 바울이 이 부부를 언급할 때(행 18:2,18,26; 롬 16:3; 고전 16:19; 딤후 4:19) 여섯 번 모두 이 부부를 함께 언급했을 뿐 아니라, 또한 여섯 번 중 네 번이나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고 다음에 남편의 이름을 썼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부부가 항상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울 사도가 아내의 신앙적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이 부부 상호간의 아름다운 애정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견고한 부부관계 형성에 실패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부부 간의 신앙의 격차로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아내만 믿거나 남편만 믿는 짝 믿음의 경우는 홀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배우자 한쪽만 열심인 신앙을 갖고 상대자를 그대로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도, 한쪽은 종교적으로 다른 한쪽은 세속적으로 기울어 극단적인 가정불화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배우자 또는 성숙한 기독교인은 자신의 신앙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달아 믿음이 없는 배우자 또는 미성숙한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들은 결혼생활을 무덤이 되게 방치하지 않고 한 마음

으로 에덴동산을 만들었다. 이 부부가 처음부터 하나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성과 의지와 믿음으로 성숙한 사랑을 하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부부 간에 신앙적인 균형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독주하지 말라. 부부는 기다리며 인내하며 서로 함께 달려야 한다. 부부는 서로 신앙의 잣대로만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또는 여성의 특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임을 그대로 용납하며 이끌어주어야 한다. 진정한 부부 사랑은 바로 이때부터인 것이다.

■ 이선이 박사는 누구?

이선이 박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장신대학원에서 석사(M.Div), 박사(Th.D. in Missiology) 학위를, 미국 플로리다신학원(FCTS)에서 여성신학으로 박사(D.Min) 학위를 받았다.

두드림교회, 창립 6주년 맞아 다채로운 행사

팸데일에 위치한 두드림교회(담임 안세광 목사)가 창립 6주년을 맞아 감사부흥회를 비롯 전교인연합에

배, 권사취임식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감사부흥회는 '성령 사역'이라는 주제 하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를 역임한 이강천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열린다. 오는 5월 6일(월) 오후 1시 30분 플라신학대학원 D.Min 세미나룸에서다. 교회 측은 이번 행사와 관련, "귀한 강의를 통해 목회와 사역에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

같은 모임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LA지역 등지에서 사역 중인 서울신대 동문들과 성결교 목회자들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행사 관련 문의는 이상훈 박사(626-228-6557) 또는 안세광 목사(661-860-7920)에게 하면 된다.

한편, 두드림교회는 6년 전 '성령님 안에서 가정같은 교회, 교회같은 가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혁을 시작해 지금껏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문의: 661-538-1919

Advertisement for iTalkBB featuring phone service plans, promotional offers like '대박 찬스' (Big Chan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LA office at 213.559.7557 and 1.800.872.2902.



www.phhyundai.com

스마트하게  
현대차를  
구입하려면,



SUPER STORE  
푸엔테힐스현대

고객의 1등 사랑, 1등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푸엔테힐스 현대가 도와 드립니다.  
친절한 상담과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013 ACCENT GS M/T



**\$69**

+TAX (STK #092129)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5,985

PH HYUNDAI D/C \$1,344 MILITARY REBATE \$500  
COMP.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90**

+TAX (STK #701499)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360

PH HYUNDAI D/C \$2,300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EQUUS SIGNATURE



**\$473**

+TAX (STK #065945) Demo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4,999

MSRP \$60,170

PH HYUNDAI D/C \$8,282 COMP. REBATE \$1,000  
LEASE CASH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merica's Best Warranty<sup>™</sup>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Sales  
스티브장  
626.513.4005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Sales  
브라이언 리  
858.337.3993